

EU 단일시장 내 연구·혁신·교육 강화를 위한 5번째 자유

<’24.04.2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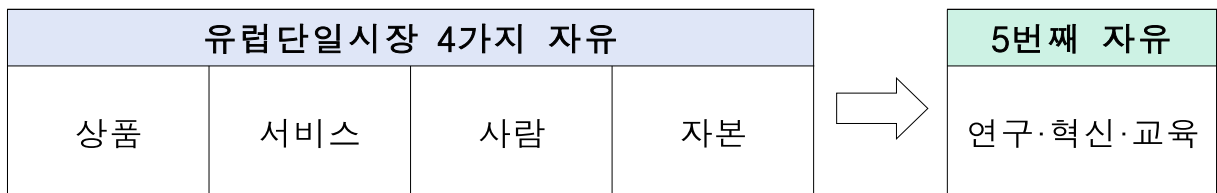
- 아래 내용은 EU 정상회의가 의뢰한 EU 단일시장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‘연구·혁신·교육을 위한 다섯 번째 자유’에 관한 내용을 다름

□ 배경

- ‘24년 4월 17일 EU 정상회담에서 전 이탈리아 총리 Enrico Letta는 ‘EU 내부시장의 미래’에 대한 고위급 보고서를 발표
 - ‘23년 6월 EU 정상회의의 의뢰에 따라 Letta는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EU 전역의 전문가들과 4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
 - EU 정상회담은 이틀간 유럽연합의 경제와 경쟁력의 맥락에서 이를 논의
- 이는 EU 단일시장뿐만 아니라 R&I 환경 및 펀딩 프로그램의 향후 구조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내용을 파악할 필요 있음

□ 주요 내용

- 보고서는 단일시장 내 ‘연구, 혁신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5번째 자유(Fifth freedom)’를 도입할 것을 제안
 - (목표)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EU 단일시장의 혁신 역량 강화
- ※ 유럽 단일시장은 상품, 서비스, 사람,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 4가지 근본적 자유를 기반으로 함



- 보고서는 상품, 서비스, 사람,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시장이 ‘구식’이며, 현재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
- 이 네 가지 자유는 소유권에 기반한 경제에서 액세스와 공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
- 5번째 자유는 연구, 혁신, 데이터, 역량, 지식, 교육 등 여러 부문을 포괄

- 여기에는 규율이나 인위적인 경계나 제한 없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고 탐구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
- 5번째 자유는 R&D, 데이터 활용, 역량, AI, 양자컴퓨팅, 생명공학, 바이오포봇공학, 우주 분야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프레임워크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, 의료 부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
 - ※ 보고서는 EU에 방대한 데이터, 전문지식 및 스타트업 풀이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, 연구개발 강점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고 단일시장의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
- 이는 단순히 연구혁신 결과물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단일시장의 중심에 연구혁신을 내재화할 것을 제안

□ 시행 지원 방안 주요 내용

○ 유럽 지식 커먼즈(European Knowledge Commons) 창설

- 보고서는 EU의 국경 간 데이터 공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‘공공 자금 지원 연구, 데이터 세트 및 교육 자원을 모으는 플랫폼’인 ‘European Knowledge Commons’의 설립을 제안
 - ※ 한편, 이것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이미 확립된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(European Open Science Cloud)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불명확

○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

-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하면서 자신의 연구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포괄적인 오픈사이언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
- 특히, 책임있는 기술 발전 보장을 위해 AI와 빅데이터의 사용의 윤리적 차원이 프레임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
- 또한,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모든 시민이 과학적 발전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, 정보에 입각한 대중 담론과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, 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있어 최신 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

○ 연구자 이동성, 인재 유치, 스킬 향상

- MSCA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은 연구자와 혁신가의 이동성을 높여 유럽의 연구 환경을 풍부하게 하고, 지식 교환을 촉진하며, 진정으로 통합된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

- 행정적, 법적 장벽 제거를 통해 활발한 전문지식 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고도로 숙련된 과학 공동체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
- 인재 유치는 유럽의 경제적 탄력성, 혁신 역량, 전략적 독립성, 사회 복지에 매우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
-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지식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스킬 및 리터러시 향상 등을 위한 범유럽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

○ 유럽단일교육공간(EEA)

- 보고서에서 유럽단일교육공간(EEA)은 다섯 번째 자유의 중요한 축으로 다루어짐
- Erasmus+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유럽대학동맹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유형의 학위(유럽학위)를 도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- 보고서는 각 동맹에 대해 연간 약 1,000만 유로로 증액하여 현재 60개 동맹의 스펙트럼에 걸쳐 약 6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권고
- 보고서는 또한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행정적, 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유럽학위를 법으로 규정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

※ 교육 분야는 회원국이 입법적 책임을 갖고 있어 EU 차원의 조화가 어려움. 유럽의원은 교육 분야를 유럽의회의 공유 분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해왔으나,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

○ 중소기업/스타트업 지원

- 보고서는 혁신을 가속화하고,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,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“EU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지식 교환과 혁신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영역에서 공공-민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”라고 명시
- 단일시장의 분열은 비즈니스 법률 및 과세 시스템과 같은 행정적 부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중소기업을 방해, 이러한 장애물을 줄이는 것이 유럽의 R&I 향상에 도움이 될 것

○ 연구 인프라 역량 강화

- 이는 5번째 자유의 핵심 필라 중 하나로, 유럽 전역의 실험실, 디지털 플랫폼 및 최첨단 장비에 대한 접근 촉진을 요구

- EU 연구자와 기업이 중요한 고성능컴퓨팅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팅 리소스와 슈퍼컴퓨터의 공유 네트워크 완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

□ 기타 내용

○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 격차 해소

- 공통 목표 공유 및 자금 조달 전략 조정을 통해 연구 중심의 발전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

○ 모니터링 메커니즘

- 다섯 번째 자유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지표(혁신 성과, 연구 파급력, 경제적 이익 등)가 필요

○ 자유로운 지식 흐름을 위한 환경 조성

- 회원국 전체에 걸쳐 법률 조화 및 일관된 시행, 행정 절차 단순화, 규제 샌드박스 사용 확대, 비차별적인 인터넷 액세스 보장 등

○ 윤리적 고려

- 연구 보안 기반 접근법 추구, 기술 발전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연구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침 개발 등

○ Deep Tech Stock Exchanges 창설

- 연기금이나 대규모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해 EU 자금 조달하기 위함

□ 결론

○ 보고서 결론

- 보고서는 결론에서 EU 이사회가 포괄적인 단일시장 전략 초안 작성 작업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며, 해당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상설 시민 회의를 설립할 것을 제안

○ EU 이사회 결론

- EU 정상회의는 Letta의 발표를 환영하며, 현재 및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에 연말까지 권고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
- EU 지도자들은 유럽연합과 회원국 수준, 그리고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EU와 국제 파트너, 주요 경쟁자 간의 성장, 생산성 및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

- 시장 흡수와 산업 및 상업적 혁신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는 우수한 과학을 기반으로 보다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GDP 지출 목표 3%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

□ 주요 쟁점

- 동 보고서가 R&I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연구계의 큰 환영을 받고있는 한편, 일부 주요 R&D 정책 입안자들의 비판도 있음
 - R&I가 EU 단일시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럽의원은 이것이 과학기술에 대한 하향식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

| 기존 R&D 커뮤니티의 작업과 일치하는 내용 | 일부 우려 사항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 자금 흐름 개선 • 공공-민간 파트너십 강화 • 데이터 공유 활성화 • 연구 보안 조치 유지 • 오픈 사이언스 추진 • EU R&I 법률 조화 • 규제 샌드박스 사용 등 | <p>과학기술의 하향식 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FP10은 단순히 유럽시장경제 계획의 이행 도구가 돼서는 안 됨 • 새로운 아이디어, 기술,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유연성이 필요 |

- 평론가들은 Letta 보고서의 비전이 이전에도 있었던 아이디어로, 혁명적이지는 않으나 완전히 기능하는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을 만드는 데 더 큰 활력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
 - 전 EU 연구 담당 집행위원 Janez Potočnik은 2007년에 지식을 다섯 번째 자유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
 - 이는 2000년도에 처음 제안된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당시 상황을 반영,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
 - 2009년 ERA는 명시적으로 EU 조약 목표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, 2018년 개편과 함께 첫 번째 ERA 정책 어젠다(2022-2024)를 수립
 - EU는 또한 고등교육 부문에서 ERA와 동등한 유럽단일교육공간(EEA)을 만들어 국경 간 연구, 교육,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통과시킨 바 있음